| 현불 논단 |

음주문화 개선 필요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주취폭력 등 사회문제 대두돼도
음주에 한없이 관대한 한국사회

이젠 '음주 라이딩' 까지 만연해
처벌 · 단속 시작했지만 벌금 수준
음주문화 바꿔야 현 문제 해결

음주 인해 다른 죄 지을 수 있어
장소와 때에 따라 자기 절제해야

실로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 이다. 우리 사회가 음주공화국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1920년대부터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술 마시기를 매우 좋아하며, 타인의 음주행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고 여기저기에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음주행태를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음주가 하나의 의식체계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집합주의가 지배적인 생활문화에서는 술자리에서도 개인의 입장은 무시되기 십상인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여 술을 즐기기보다는 공동체 규합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겐 아직도 노동과 여가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여 노동이 여가요, 여가도 노동인 경우가 많은데 그 간극을 술이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마도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음주의 사회적 의미가 남다를 정도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였지만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질환으로 소모되는 의료비는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경찰기관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즉 주취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우리만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나라도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주 자전거 운전, 즉 음주 라이딩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서글픈 소식이다. 최근 들어 자전거 동호인이 크게 늘면서 음주 라이딩도 그만큼 만연해졌다고 한다. 자전거가 보호 장비를 아무리 갖추어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충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주 라이딩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물론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범칙금만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처벌규정이 음주 라이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해 음주 라이딩의 동기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벌이 미약하고, 단속도 쉽지 않아서 경미한 처벌마저도 불확실하다면 다른 방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길일 것이다.

술 자체가 사회의 악이고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부터 우리 불가에서도 술을 술이라고 하지 않고 '곡차' 라고 했다. 고승들의 일화에도 '곡차' 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자체만으로 계를 어겼다(犯戒)고 보지 않는 의식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음주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다른 죄를 지을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차계(遮戒)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오계 중에서 '불음주' 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겠습니다' 로 수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술을 마신 후 허튼 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는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술은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음주' 와 '불음주' 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社說

'50돌' 전국비구니회에 거는 기대

비구니들의 권익향상과 교육 · 수행 · 포교 · 복지 등 다방면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8년 전신인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 로 출발해 반백년의 역사를 쌓았다.

전국비구니회는 긴 세월 동안 '도덕을 높이고 신의를 밝혀 사회의 꾀함을 위함' 이라는 기치와 △총림의 건립 △포교의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3대 강령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비구니들의 대사회적 활동무대를 확대하고, 종단 내 종무행정과 입법활동분야서 톡톡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구심점이 됐다.

이제 전국비구니회는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준비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비구니 의료서비스 확대와 노스님 수행거처 마련이다. 앞서 비구니회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동국대 일산병원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비구니스님들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진료를 통해 병마를 이겨낸 스님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다.

또한 노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수행거처가 전국비구니회 차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지어지거나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주지 소임을 마치거나 나이가 들면 비구스님에 비해 갈 곳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어느 비구니스님의 호소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다. 부디 전국비구니회가 반백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비구니 승려복지에 앞장서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사찰 축제 '자비실천' 확대를

가을은 국화의 시즌이다. 사찰에서는 국화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사찰 초입에만 가면 향긋한 국화향기가 퍼져 나온다.

국화축제가 열리는 사찰에서는 또 다른 향기도 퍼져 나온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행사다. 판로가 막힌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부터, 실업자 상담과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소개마당, 농촌의 작은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까지 사찰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조계사는 여기에 더해 아예 봉사단을 발족한다. 가가호호 다니며 집수리부터 생필품 전달까지 국화축제를 맞아 본격적인 자비행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사찰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사음악회부터 문화재 전시전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사찰 행사가 더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조계사의 사례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실천이 늘어나야 한다.

단순한 행사도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로 바뀔 수 있다.

사찰은 예로부터 빈민구제, 구호의 중심이었다. 어려울 때 사하촌 사람들은 사찰에 의지해 헤쳐나갔고, 사찰 또한 어려울 때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었다.

다시 사찰과 농촌(寺農)공동체의 전통을 살리고 여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더할 때 불교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이제 진정한 자비의 꽃을 사찰에서 피우자.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보물 제 2000호 지정에 부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이 제2000호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에 그린 8폭 병풍 중 한폭인 '삼공불환도' 가 보물 제2000호의 주인공이 됐다. 불교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물 지정 제2000호는 축하할만 한 일이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중심으로 지정하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했다.

기실 국보와 보물에서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17년 문화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보 중 176건이, 보물 중 1266건이 불교문화재였다. 국보와 보물 중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예산 사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간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2800억 원이며, 그 중 국유와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은 741억 원이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운영비용으로 1000억 원이며, 이 중 궁 · 능, 유적 관리소에 배정된 예산은 610억 원이다. 사실 불교문화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보호기금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 운영, 시설 건립, 국유문화재 관리에 사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화재 전체 전승과 유지 · 보수에 44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장 많아 보이지만, 국가 소유 궁능 유적관리에만 772억 원이 별도 배정돼 있다. 내년 주요 사업 계획도 광화문 월대 복원, 인천공항 궁중활용프로그램, 궁중문화축전 등 대부분이 국가 소유 문화재 관리 · 활용에 집중됐다.

국가 지정문화재 중 절반 이상은 조계종 등 개인 · 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재들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 보전 · 활용하는 예산 비중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면 이에 맞는 예산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사부대중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 063)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 전화 031)426-2348, 2221
• 전송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